

윤도현 “부상 없는 풀시즌 목표...공·수 활약 펼칠 것”



“올 시즌은 부상없이 풀타임 출전으로 저의 능력을 증명하고 싶습니다.” KIA타이거즈 내야수 윤도현이 2026시즌 새로운 도약을 꿈꾸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2022 신인드래프트 2차 2라운드 15순위로 KIA에 등장을 틈 윤도현은 데뷔 후 매년 부상으로 고통받았다. 2022년에는 시범경기 당시 오른쪽 손목 골 골절상을 당하면서 1군 무대에 오르지 못했다. 이듬해 5월에는 꿈에 그리던 1군 무대를 밟았지만, 1경기만 뛰고 햄스트링

발 출전해 3타수 3안타 3득점 1타점으로 맹활약했다. 앞서 2일 삼성전에서 스티븐 로빈슨을 폭발시키면서 팀의 8-3 승리를 이끌었다. 부상 없이 캠프를 마친 그는 올 시즌 이전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겠다는 각오다. 윤도현은 “그동안 몸의 컨디션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 피곤하거나 불편하면 상황에 맞게 훈련을 해야 하는데, 웨이트 트레이닝이 집중된 것이 악영향을 미쳤다”면서

수비력 강화에 힘을 쏟았다. 윤도현은 “스스로이나 스텝 등에서 부족한 모습이 많았다. 이에 캠프 기간 엑스트라 훈련도 매일 소화했다”면서 “덕분에 수비적인 부분이 좋아지는 게 체감이 된다. 힘들다가보단 재미를 느끼고 있다”고 언급했다. 올해는 윤도현에게 큰 기회다. 박찬호가 이적하면서 내야수 자리에 변화가 생겼다. 유격수 자리는 아시아쿼터 제리드 데일 이 차지할 전망이다.

의 경우 잡고 던지는 건 편하다. 그러나 처음 소화하는 포지션이라 팀플레이나 중계 플레이 등에서 미흡한 부분이 많다. 이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김)선빈 선배가 지명타자로 나갔을 때 2루 자리에서 가장 뛰고 싶다. 감독님께서도 ‘넌 수비만 해라. 그 자리에 갈 수 있다’고 말씀해주셨다”면서 “수비 부분이 확실히 늘고 있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한다면 질할 수 있다는 자신감도 있다”고 덧붙였다.

스프링캠프서 수비 맹훈련...스로잉·스텝 등 집중 연습경기 견재한 타격감 증명...2루수 출전 욕심도

부상으로 2군 무대로 내려갔다. 2024년 역시 손가락 골절 등으로 2군 생활과 재활을 병행하며 6경기 출전에 그쳤다. 성적은 27타수 11안타 1홈런 8타점 타율 0.407. 지난해에는 처음으로 100타석을 넘겼다. 40경기 160타석에서 41안타 6홈런 17타점 타율 0.275로 가능성을 보여줬다. 타격 재능만큼은 동기 김도영급이라 평가를 받는 그는 올해 스프링캠프에도 참가했다. 6일 LG와의 연습경기에서는 1루수로 선

“이번 캠프에서는 확실히 관리했다. 예전에는 몸이 피곤한 느낌이 있었는데 이제는 피로도도 많이 줄었고 몸 상태가 확실히 좋아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타격에는 확실히 강점이 있었다. 다만 수비가 불안정했기에 이번 캠프에서

다만 베테랑 김선빈의 경우 2루수와 지명타자를 번갈아가며 출전할 예정이다. 장기적으로 그의 자리를 대체할 자원이 필요하다. 윤도현이 유력한 후보다. 올해는 주전으로 출전하기 어렵다. 현실적으로 2루수와 1루수 백업을 주로 볼 것으로 보인다. 실제 캠프 기간 1루수와 2루수 훈련을 병행했다. 윤도현은 “1루

그동안 많은 부상을 겪었지만, 타격폼에는 변화가 없다. 타격 부분에서는 자신 있는 이야기다. 윤도현은 “타격폼은 그대로다. 부상 이후 재활하면서 체계적인 훈련을 했다”면서 “그러다 보니 몸도 좋아지고 강한 타구들도 많이 나오기 시작했다. 연습을 통해서도 타격이 늘지만 웨이트트레이닝 등 또한 중요한 걸 많이 느꼈다”고 설명했다. 올해 그의 목표는 풀타임 출전이다. 윤도현은 “한번 부상을 당하면 쉬었다가 다시 끌어올리는 게 어렵다. 부상 없이 1군에서 풀시즌을 치르는 게 목표다”면서 “타석수에 대한 욕심은 없다. 부상 없이 경기를 치르다 보면 자연스럽게 발전할 거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

광주FC 김경민, K리그 통산 200경기 고지 밟았다



주전 골키퍼로 활약... 2024년 국가대표 생애 첫 선발 “포기하지 않고 달려서 이뤄낸 성과...팀 구성원도 감사”

프로축구 광주FC의 ‘거미손’ 김경민이 K리그 통산 200경기 고지를 밟았다. 김경민은 최근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하나은행 K리그1 2026 2라운드 인천유나이티드와의 경기에서 선발 출전하며 K리그 통산 200경기 출장 기록을 세웠다. 2014년 제주유나이티드(현 제주SKFC)에서 프로 생활을 시작한 김경민은 이후 부산아이파크(임대), 포천시민축구단(군부부), 서울이랜드 FC 등을 거치며 꾸준히 경력을 쌓아왔다. 2022년 광주에 입단한 김경민은 합류 직후 주전 골키퍼로 자리 잡으며 팀의 최후방을 책임졌다. 김경민은 입단 첫 시즌부터 K리그2 베스트 11에 선정되는 등 뛰어난 활약을 펼쳤고, 광주의 K리그2 최다승 및 최다 승점 신기록 달성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김경민은 단순한 선발 능력을 넘어 빌드업 과정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며 광주 전술의 출발점으로 평가받고 있다. 2024년에는 생애 첫 국가대표에도 발탁되는 등 리그를 대표하는 골키퍼로서 임지를 공고히 했다. 특히 200경기 출전을 기록한 인천전에서는 경기 종료 직전 상대에게 페널티킥을 허용하는 위기 상황에서 결정적인 선방을 펼치며 팀의 3-2 승리를 지켜냈다. 기록 달성과 동시에 승리를 이끌어나며 ‘수호신’다운 존재감을 보여줬다. 김경민은 “하루하루 버티다 보니 이렇게 K리그 200경기까지 오게 됐다. 모든 선수들에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다 보면 이룰 수 있다고 믿고 싶다”며 “가족들과 기회를 주신 감독님을 비롯한 팀 구성원들에게 감사드리고, 항상 넘치는 응원을 보내주시는 팬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송하중 기자 hajong2@

‘최종 옥석가리기’ KIA, 오늘 SSG와 첫 시범경기

24일까지 총 12경기...전략전 오버런 판독 등 새 규정 적용



KIA타이거즈가 KBO 시범경기기를 통해 최종 옥석가리기에 돌입한다. KIA는 12일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SSG랜더스와 시범경기 개막전을 치른다. 13일까지 SSG와 홈 2연전을 마친 뒤에는 14-15일 같은 장소에서 kt위즈와 2연전을 치른다. 이후 경기는 모두 원정으로 치러진다. 16-17일 NC다이노스전(창원)을 시작으로 19-20일 한화이글스전(대전), 21-22일 두산베어스전(잠실), 23-24일 삼성라이온즈전(대구)까지 시범경기 일정을 소화한다. 오는 28일 정규리그 개막전에 앞서 펼쳐지는 올해 시범경기는 팀당 12경기씩 총 60경기를 치른다. 연장전과 더블헤더는 실시되지 않는다. 시범경기에는 2026 KBO 리그 정규시즌을 맞아 새롭게 바뀐 규정이 모두 적용된다. 피치클락은 투

구 간격을 전년 대비 2초 단축해 주자 없을 시 18초, 주자 있을 시 23초로 줄었다. 지난 시즌 중간에 도입된 체크스빙 비디오 판독(팀당 2회·반복 시 기회 유지)은 올해도 시행된다. 2루와 3루에서 발생하는 ‘전략적 오버런’ 또한 비디오 판독 대상에 새롭게 추가된다. 1·2루수는 비디오 판독 소요 시간을 줄이기 위해 무선 인터컴을 착용하고 경기를 치른다. 새로운 부상자 명단 규정 역시 적용된다. 각 구단은 시범경기 개막일 이후 경기 및 훈련에서 발생한 부상에 대해 개막전 엔트리 공시 3일 이내에 해당 선수의 부상자 명단 등재 신청을 할 수 있다. 2026 KBO 시범경기는 구장에서 직접 관람할 수 있고, 5개 스포츠 케이블 채널(KBSN스포츠, MBC스포츠플러스, SBS스포츠, SPOTV, SPOTV 2) 및 OTT 플랫폼 TVING을 통해서도 시청 가능하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

전남장애인체육회, 사각지대 없는 ‘스포츠 복지’ 실현

장애인생활체육 지원사업 설명회

전남도장애인체육회가 스포츠 복지 실현을 위한 생활체육 활성화에 나선다. 전남도장애인체육회는 11일 전남체육회관 1층 체육관에서 ‘2026년 장애인생활체육 지원사업 공모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시군장애인체육회 및 지역 장애인단체 관계자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행사는 변화된 공모 지침과 세부 사업별 추진 방향을 상세히 안내해 도내 장애인 생활체육 사업의 실질적인 내실을 다지고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전남도장애인체육회가 가장 중점을 두는 부분은 ‘등록스포츠클럽으로의 전환’이다. 이에 기존 임의 동호인단체 성격의 생활체육 클럽들이 ‘스포츠클럽법’에 의해 법인적 지위를 갖춘 등록스포츠클럽으로 전환하도록 적극 유도할 예정



이다. 이는 장애인들이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선진형 스포츠클럽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방침이다. 이를 통해 단순한 동호회 활동을 넘어 지속 가능한 생활체육 환경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지역생활체육대회 지원사업 도비 예산이 전년 대비 53% 증액됨에 따라, 지원 대상과 규모가 확대됐다. 이번 예산 확보로 더 많은 시·군과 종목별 단체가 혜택을 받게 돼 지역 내 생활체육 저변 확대는 물론 도내 장애인들의 건강 증진과 사회 참여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밖에도 종목별·유형별 생활체육교실, 학교 밖 통합체육교실, 우수 선진단체 공모 등 다양한 지원사업이 마련됐다. 이번 공모사업 접수 오는 20일 오후 4시까지 전남도장애인체육회 누리집 공모 공고문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

전남 김찬우·조다은, 대한체육회 꿈나무·다관왕상 수상

전국동계체전에서 각각 4관왕...“동계스포츠 육성 시스템 결실”

전남 동계종목 유망주 김찬우(화순초 6년)와 조다은(전남체고 1년)이 대한체육회장상을 수상한다. 11일 전남도체육회에 따르면 오는 16일 도체육회관에서 열린 예정인 표창장 전수식에서 김찬우와 조다은이 대한체육회장상 꿈나무상과 다관왕상을 받는다. 김찬우는 ‘제107회 전국동계체육대회’ 크로스컨트리 남초부에서 클래식 2.5km, 8km계주, 스프린트 0.7km, 복합 종목을 석권하며 금메달 4개를 획득했다. 프리 3km에서는 은메달 1개를 추가해 총 5개의 메달을 따냈다. 그 결과 12세 이하부 최다 메달리스트에 이름을 올리며 꿈나무상과 다관왕상을 동시에 수상하게 됐다. 조다은은 다관왕상의 영예를 안게 됐다. 그는 대회 크로스컨트리 여고부에서 클래식 5km, 프리 10km, 스프린트 1.2km, 복합 종목을 모두 제패하며 4관왕에 올랐다. 앞서 조다은은 2022년 제103회 전국동계체육대회에서 5관왕을 차지하며 동계 유망주로 이름을



김찬우

조다은

알린 이후, 제104회·제105회 대회에서도 각각 5관왕에 오르며 주목을 받았다. 이어 제106회 대회와 제107회 대회에서도 4관왕을 달성하는 등 꾸준한 활약을 펼치고 있다. 송진호 전남도체육회장은 “이번 성과는 선수 개인의 노력과 함께 전남 동계스포츠의 육성 시스템이 결실을 맺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며 “앞으로도 유망주 발굴과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전남 동계체육의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